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2006년도 일본의 수산물 소비 동향

- 일본 총무성은 2006년도 가계조사보고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다량어 등 어패류에 대한 소비지출이 어패류 가격 상승에 의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어패류 소비 감소, 단가 상승의 여파로 풀이

- 최근 일본 경기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본 가구의 전체 소비지출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3백 54만 엔을 기록한 가운데, 식료품에 대한 소비도 1.3% 감소한 89만 2,116엔, 어패류 소비지출도 전년도 대비 1% 감소한 9만 1,480엔으로 조사됨
 - 2006년도 가구당 가정 내 어패류 소비지출(1년)은 2003년 이후 4년 연속으로 10만 엔을 밑돌았는데, 이는 단가 상승으로 구매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됨
- 어패류 중 선어와 패류를 합한 신선어패류는 5만 5,020엔으로 1.1% 감소, 구매량은 38kg으로 4.7% 감소하였음
 - 단위(100g)당 단가로 환산해 보면 신선어패류의 2006년도 단가는 144.4엔으로 전년도의 139.2엔에 비해 3.7%인 5.2엔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됨

【 세대당 식료비 지출 추이 】

구 분	소비지출 (엔)	식료품 (엔)	어 패 류							일반외식	
			합 계 (엔)	신선어패		염건어패		어 육 연제품 (엔)	기 타 가공품 (엔)	전 체	초 밥(엔)
				금액(엔)	물량(g)	금액(엔)	물량(g)				
2000	3,805,600	972,424	110,147	67,367	43,634	19,800	11,079	10,327	12,653	161,736	16,929
2001	3,704,298	943,313	106,101	64,339	42,508	19,252	10,895	10,225	12,284	154,762	16,289
2002	3,673,550	940,040	104,141	64,158	43,889	18,663	10,742	9,579	11,740	169,596	16,289
2003	3,631,473	923,295	98,475	60,239	42,327	17,964	10,533	9,109	11,163	152,063	15,121
2004	3,650,436	919,970	94,809	57,487	40,918	17,325	10,271	9,059	10,937	152,960	14,955
2005	3,610,841	904,157	92,450	55,658	39,973	17,022	10,043	8,880	10,890	151,677	14,662
2006	3,543,990	892,116	91,480	55,020	38,112	16,900	9,714	8,800	10,760	149,617	13,875

■ 다량어, 모듬회 등 상위품목의 소비 감소 현저

- 선어에 한정해 보면 감소추세가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품목이 다량어인데, 단가가 7.4% 상승하면서 구매량은 약 11.3%, 금액도 4.7% 감소하였음
 - 또한 '모듬회'의 단가가 전년도 대비 4.2% 상승하면서 구매량과 소비지출은 각각 7.7%, 3.8%씩 감소하였음
- 이외에 새우와 방어는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을 뿐이지만 구매량과 소비지출 모두 감소한 반면, 연어의 경우 구매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가의 대폭적 증가로 구입금액이 전년도를 웃돈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어리와 고등어는 단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구매량도 동시에 증가하면서 소비지출이 모두 증가하였음

■ 패류 소비, 겨울철 굴 소비 감소로 부진

- 2006년도 패류 소비는 구매량이 전년도 대비 4.5%, 소비지출은 0.2% 감소하였는데
 - 이는 바지락의 소비 감소에 더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노로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겨울철 굴 소비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임
 - 실제로 2006년도 12월 굴 소비는 구매량과 소비지출이 전년도 동기간 대비 각각 32.9%, 24.6%나 감소하였음

【 세대당 주요 어패류 소비지출 및 구매량 】

구 분	금 액(엔)		물 량(g)	
	2006	2005	2006	2005
소비지출	3,543,990	3,610,841	-	-
식료품	892,116	904,157	-	-
어패류	91,480	92,450	-	-
○ 신선어패류	55,020	55,658	38,112	39,973
선 어	50,003	50,629	34,367	36,021
- 다랑어	6,631	6,958	2,826	3,186
- 전갱이	1,710	1,660	1,705	1,704
- 정어리	734	694	866	801
- 가다랑어	2,068	2,057	1,348	1,414
- 가자미	1,671	1,617	1,265	1,332
- 연어	3,945	3,797	2,904	3,025
- 고등어	1,360	1,267	1,535	1,446
- 꽁치	1,456	1,524	2,237	2,413
- 돔	1,326	1,441	746	816
- 방어	3,438	3,525	2,037	2,089
- 오징어	2,942	3,032	2,991	3,061
- 문어	1,505	1,493	890	911
- 새우	3,729	3,917	2,010	2,134
- 계	2,440	2,419	1,002	1,036
- 기타선어	8,974	8,913	6,626	6,784
- 모듬회	6,073	6,314	2,156	2,336
패 류	5,017	5,029	3,719	3,911
- 바지락	1,148	1,154	1,257	1,336
- 재첩	596	589	464	470
- 굴	1,228	1,306	705	798
- 가리비	1,460	1,365	838	776
- 기타패류	585	614	399	486
○ 염건어패류	16,900	17,022	9,714	10,043
- 염장연어	2,199	2,125	1,666	1,729
- 대구알(명란포함)	3,103	3,223	781	778
- 건조전갱이	1,252	1,247	1,186	1,243
- 자건품	526	540	295	295
○ 어육연제품	8,800	8,880	-	-
○ 기타어패가공품	10,760	10,890	-	-
- 가다랑어포	927	968	347	350
- 염장품	3,256	3,215	-	-
- 통조림	2,309	2,311	-	-
○ 육류	74,904	75,318	-	-
○ 건제품 및 해조류	9,894	10,509	-	-
- 미역	1,641	1,634	1,368	1,370
- 다시마	1,221	1,284	444	466
- 조미료	1,822	1,827	-	-
- 후리카케	1,441	1,421	-	-
○ 조리식품	101,924	101,627	-	-
- 장어구이	3,764	3,932	-	-
- 냉동조리식품	5,194	5,189	-	-
○ 외식	160,951	163,045	-	-
- 초밥	13,875	14,662	-	-

■ 외식 중 초밥 소비도 감소

- 염건어패류는 구매량이 3.3% 감소한 9.7kg, 소비지출이 0.7% 감소한 약 1만 7천 엔으로 모두 전년도를 하회하였음
- 어육연제품의 소비지출은 0.9%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12월 소비지출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찌게요리 수요 감소로 인해 전년도 동기간 대비 4.4%나 감소하였음
 - 기타 어패가공품의 소비지출은 12월의 경우 통조림 소비 호조로 증가하였으나, 전체 1년간의 소비지출은 자배건품의 소비 감소로 1.2% 감소하였음
- 한편 가정 이외의 식료품 소비 지출 중 일반외식과 초밥의 소비지출 모두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임경희, imkh@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 상하이시, 설 명절 기간 동안 수산물 선물세트 판매량 20% 늘어

- 상하이(上海)시 수산협회 통계에 따르면 설 명절 기간(전후 10일) 동안 상하이시 9개 주요 수산도매시장의 수산물 거래량은 약 3만 톤으로 상하이시 전체 수산물 거래량의 51.7%를 차지하였음
 - 설 명절 기간 동안 상하이시의 1일 수산물 소비량은 전년도 연평균 소비량의 3.2배 정도에달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 이 중 수산물 선물세트의 판매량은 16만 5,000상자로 전년 대비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수산물 선물세트의 가격은 100~1,800위안(1만 2,500원~22만 5,000원)수준인데, 이 중에서도 100~600위안(1만 2,500원~7만 5,000원)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가장 인기를 끌었음
- 한편 일부 수산물의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고가의 게류, 새우류는 30~40%, 전통 수산물인 병어, 조기 등은 1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중국의 수산물 소비시장은 점점 다양화 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선물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대중국 수출확대 전략모색과 관련, 중국의 이러한 수산물 소비시장 구조 변화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이은화, yhli19@kmi.re.kr>

■ 일본 수산청,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안) 수정

- 수산청은 새로운 수산기본계획(안)을 수정하였는데, 관련 전문가 및 일반 의견공모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힘
 - 수산기본계획은 ① 수산정책의 기본방침, ② 2017년도 자금률 목표, ③ 종합정책 및 계획, ④ 정책 추진을 위한 필요사항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음
- 수산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 일본 수산정책의 기본을 구성하는 것으로써, 수정안에서는 일본을 둘러싼 상황 변화를 감안한 결과, 기존에 없던 제도·구조의 도입 필요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짐

- 일례로 수정안에서는 어업생산구조 개혁을 시급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경영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영세 연안어업에 관련된 바람직한 전망을 제시하였음
- 수산청은 향후 계획에 포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기간을 명시한 공정표를 공표하는 동시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정책내용 및 체제 등을 재검토하기로 함
- 최근 공개된 일본의 수산기본계획 수정안은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의 급박한 변화를 계획 내에 가능한 반영하고자 새로운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 우리나라와 일본간 수산업 및 환경의 유사성을 감안해 볼 때 기존의 수산기본계획과 수정안에 대한 비교·검토가 국내 수산분야에 대한 시사점 도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할 것임

<임경희, imkh@kmi.re.kr>

■ 캐나다, 백합 양식 면허 중지 요청

- 캐나다의 새민주당(New Democratic Party)은 브리티쉬 콜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정부에게 최근 조지아(Georgia) 해협에서의 백합 양식 면허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지난 달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정부는 양식 확대를 위해 조지아 해협외의 사바리(Savary)와 호난도(Hernando) 섬에서 2개의 새로운 백합 양식을 승인하였음
 - 하지만 브리티쉬 콜럼비아의 양식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주정부가 승인 전에 지역사회와 면허 허가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으며 백합 양식에 대한 정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음
- 또한 포웰(Powell) 강 주변 원주민 마을의 대표인 벨(Bell)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조사와 지역 사회와 논의가 끝날 때까지 이 면허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양식 승인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지해야한다고 강조하였음
 - 아울러 가까운 미래에 이 면허에 대한 승인 취소나 중지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소송이나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 말하면서
 - 바다에서 백합양식에 대한 환경적 영향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독립적이며 과학적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정부가 면허 승인을 연기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하였음
- 현재 전세계적으로 잡는 어업은 바다에서 수확할 수 있는 최대 한계치를 도달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양식 어업이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양식어업의 증가로 인해 인근 수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으며 양식 환경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캐나다 사례와 같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양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 역시 양식생산이 지난해 수산물 전체생산(약 303만 톤) 중 42%를 차지하는 등 양식어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양적인 생산 증가에서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친화적인 양식 방법으로 전환해야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강형덕, thymos@kmi.re.kr>

■ EU 수산물 공급 부족

- EU에서 수산물 공급 부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나 단기간에 생산을 확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수산 자원 감소로 인해 현실적으로 EU 인근해 어획 쿼터량을 늘리기 힘든 실정이며, 과거 3년간의 어획 실적만 보더라도 어획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2004년 5,918천 톤→2005년 5,293천 톤)
 - 원양 어업 생산의 경우도 지역수산기구의 자원 보호 노력으로 인해 쿼터량을 확보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 양식 생산 규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2003년 1,375천 톤→2004년 1,318천 톤)
- 반면 EU의 소득 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는 한편 수산물 주요 수입국인 아시아 국가에서도 최근 소득 증대로 인한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 같은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EU는 자국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입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반덤핑조치 및 까다로운 위생규정을 두고 있음
 - 현재 EU 전체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6.5%이나 수산물은 12.6%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음¹⁾
- EU는 세계 최대 수산물 수입 국가 중 하나이나 국내외 여건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 생산확대 가능성이 높지 않아 향후 수입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높은 관세율 적용 및 비관세 장벽

1) EU의 관세율은 대외경제연구소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의 표 2-5 인용

을 통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등의 양면적 양상을 띠고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는 조만간 개시될 한-EU FTA 협상에서 EU의 이러한 양면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즉, 현재 EU가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까다로운 위생 규정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 모색과 더불어
 - EU의 수입증대 가능성을 고려, 대 EU 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임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 푸젠성, 설 명절 기간 對대만 수산물 수출 급증

- 푸젠(福建)성은 설 명절 기간(전후 10일)에 대만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수출량과 금액이 각각 100톤, 10만 달러로 집계되었음
 - 한편 지난해 푸젠성 동산(東山)항의 對대만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4만 6,200톤, 1,800만 달러에 달하였음

■ 다롄시, 우수수산물 해면양식어업 강화

- 올해 다롄(大連)시는 해면양식어업에 대한 구조 조정을 통해 우수수산물의 양식을 강화할 계획인데
 - 목표는 해면양식 수산물의 생산량과 금액을 각각 전년 대비 2.7%, 14% 증가한 133만 톤, 108억 위안으로 늘릴 예정임

■ 칭다오시, 브라질로 수산물 수출길 열려

- 최근에 칭다오시의 7개 수산물수출기업이 대브라질 수산물 수출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 이는 중국이 최초로 라틴아메리카시장을 개발한 사례로 중국정부가 수산물수출에 있어서 시장 다양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 보여주는 사례임

■ IWC 정상화 회의, 의장리포트 채택뒤 폐막

- IWC 가맹국 중 37개국이 출석한 가운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WC(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국제포경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회의가 15일 의장리포트를 채택하고 폐막하였음
 - 의장리포트는 향후 IWC 앵커리지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해 사무국에 제출될 예정임
- 이번 정상화 회의는 반포경국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중간과와 지속적 이용 지지 국가만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는데, 목표로 삼았던 양 대립진영 간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음

■ 고치현 양식어업인,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 시도

- 고치현(高知縣) 스쿠모시(宿毛市)에서 방어양식업을 운영하는 어업인이 동료 어업인과 연계하여 '에코 피쉬 유한책임사업조합(LLP)'를 설립하였음
 - 유한책임사업조합은 미국, 영국 등지에서는 금융, IT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형태임
- '에코 피쉬 유한책임사업조합'에는 양식어업인과 함께 판매전략, 양식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력추적시스템 구축 전문 업체 등이 참가하였는데
 - 설립자는 이를 통해 상품 개발부터 마케팅, 출하에 이르는 종합적인 사업모델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민물양식분야 중점 육성

- 말레이시아 정부는 민물양식이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하여 크게 기여하는 분야이므로 양식업자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음
 - 연방양식시장공사(Federal Agriculture Marketing Authority, FAMA)의 사장인 닷옥 압둘 라힘 바크리(Datuk Abdul Rahim Bakri)는 비용면에서 해면 양식이 민물 양식보다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며 유류비 상승에도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민물양식분야 육성을 강조하고 있음

■ 필리핀, 틸라피아와 새우의 복합양식을 통한 소득 증대

- 필리핀 이프가오(Ifugao) 지역의 양식업자들은 양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통해 그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방안을 찾았음
 - 비록 아직까지는 복합양식에 따른 생존율이 낮지만 틸라피아와 새우 복합양식을 통해 두 배 이상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스리랑카, 밀크피쉬 양식 촉진 계획 시행

- 스리랑카는 다랑어 어획을 위한 미끼 수입을 위하여 매년 230만 달러어치를 지불하고 있으며 주된 품목으로는 밀크피쉬임
 - 이 품목은 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냉동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스리랑카 정부는 수입으로 충당하는 밀크피쉬 공급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밀크피쉬 양식 촉진 계획을 시행중에 있음

■ 미 연방 정부의 어업 일수 제한, 메사추세츠 수산보조금 지급 요청

- 작년 11월 미 연방 정부는 저서어류의 자원 관리를 위해 메사추세츠의 글라우체스터(Gloucester) 지역과 뉴베드포드(New Bedford)지역의 어업 일수를 종전의 반으로 줄이도록 하였음
 - 주로 대구, 넙치를 어획하는 글라우체스터와 뉴베드포드의 어업인들은 1년에 각각 24일과 40일로 어업일수를 제한받게 됨
 - 이에 메사추세츠 주는 어업일수의 엄격한 제한으로 인해 어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연방정부에 보조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 현재까지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도 유사한 피해 사례로 1,600만 달러가 지급된 사례가 있어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버지니아 주, 외래 굴 이식으로 굴 산업 회복 노력

- 버지니아 주의 주요 굴 생산지역인 체사피크 만은 그동안 극심한 수질 오염과 굴 질병 발생으로 굴 산업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었음
 - 지난 1995~1996년 사이 버지니아는 약 100만~개 이상의 굴을 채굴하였으나, 이후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2005년에는 약 8만 개의 굴이 생산되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버지니아 주의 굴 생산업체들은 외래 종인 강 굴(ariakensis oyster) 약 150만 개를 체사피크만 15개 지역에 이식하여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뉴질랜드, 어업법 개정으로 예방적 차원의 어업 자원 보호

- 뉴질랜드 정부는 지난 달 말 1996년의 어업법을 개정하여 자국의 어업 자원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또한 뉴질랜드산 수산물을 소비하는 세계 소비자들에게 수산물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자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자국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